

# 국제통상분야 분류표의 비교 분석\*

## A Comparative study of Classification Schedules for the International Trade

정연경(Yeon-Kyoung Chung)\*\*

### 목 차

I. 서론	3. KDC
A. 연구의 목적	4. 동일 자료의 분류기호 비교
B. 연구의 방법	B. 주요 분류표에서 국제통상 분야의 변천
C. 문헌연구	1. DDC
II. 국제통상의 이론적 배경	2. LCC
A. 개념	3. KDC
B. 범위	IV. 국제통상 분야 분류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III. 주요 분류표의 비교 분석	A. 문제점
A. 국제통상 자료의 분류기호	B. 개선 방안
1. DDC	V. 결론 및 제언
2. LCC	

### 초 록

최근 국제화 추세와 함께 통상 관련 분야의 확대로 인하여 국제통상 분야에서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각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류표는 데이지진분류법(DDC), 한국십진분류법(KDC), 미 의회도서관분류법(LCC)이다. 그러나 기존 분류 체계에서 국제통상 분류항목들이 학문의 학술적 분류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자료 분류와 검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분류표 중 DDC, LCC, KDC에서 국제통상에 관한 자료의 분류기호 비교를 통하여 분류표 안에서 국제통상이란 주제의 분산과 그 주제가 있는 類, 綱, 目, 細目의 차이를 보았다. 세개의 분류표 안에 주제 분산과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綱, 目, 細目에 차이가 있었다. KDC의 경우, 국제통상 분야의 전 분야가 한 부분으로 균형 있게 전개되지 못한 점이 있었고 항목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설정되지 못하여 새로운 항목의 신설이나 항목 명칭의 합리적 변경이 필요했다. 문헌분류의 목적인 동일한 주제는 한데 모으고 그 안에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시켜 검색의 효율성을 갖게 하는 분류표의 개발을 위해 주제분야 전문가와 실무 담당 사서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개정이 필요하다.

### ABSTRACT

Recently,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trade goes on increasing in quantity because of the globalism and many related areas of the field. Mos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in Korea are using Dewey Decimal Classification(DDC),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LCC), and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KDC) to classify library materials on the subject. The application of three classification schemes, DDC, LCC, and KDC were queried to determine the classification of materials on international trade. And analyses of the parts of international trade in three classification schemes were done in order to identify what major changes have mad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There was subject scatter in DDC and LCC; there was an overlap among the classes of the three systems; and there was little change between present editions and the previous editions. The revision for international trade field of the KDC, the 4th edition was suggested to help cover some deficiencies of the classification scheme. In order to develop a better KDC, the 5th edition, continuous revisions based upon the opinions of subject specialists and catalogers in the field are highly recommended.

\* 이 연구는 1997년도 후반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통상협력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 논문 접수일 : 1998년 5월 12일

## I. 서 론

1995년 1월 1일로 WTO체제가 시작됨으로써 세계 경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은 급변하는 국제통상의 변화 속에서 무역을 통하여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21세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세계적인 각각 변동을 해쳐나갈 수 있는 국가 경영능력이 시급하며, 무한 경쟁과 개방화 물결에 선진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참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국제통상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국제통상 관련학과와 국제대학원이 많이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교수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통상 관련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제통상정보의 지원을 바탕으로 통상전문가들의 총체적 능력 개발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통상정보조직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의 분류 체계란 모든 학술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이는 원하는 자료의 용이한 검색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그 체계는 기본적으로 학문의 체계에 근거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는 類, 綱, 目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분류 체계는 학술의 진보 발전을 수시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최근 관심이 높아진 새로운 주제 분야를 분류할 때, 도서관에서는 기존 분류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필요한 항목을 첨가하여 세분화시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하며 분류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첨가, 삭제, 수정 및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통상 분야도 학문의 발전과 수요에 따라 새롭게 개정되었는지, 분류 체계의 구조나 전개내용 및 형식에 있어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A. 연구의 목적

국제통상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통상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통상에 관한 자료의 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분야를 연구하거나 국제통상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최신 자료의 신속한 접근 위해 분류의 세분화가 앞으로 더욱 요구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사용되는 주요 분류표를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류표의 부적절한 분야는 찾아내어, 보다 적합하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통상이란 새로운 학문 분야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이 분야의 발전과정 및 학문적 체계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다양한 주요 분류표를 비교하여 주제의 분산 정도를 알아보고 한국십진분류표의 항목 설정에 있어서 미비한 항목, 너무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비세분적인 항목 등의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의 세분화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국제통상분야의 분류표 전개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제통상 자료의 주제별 서지 작성의 틀 및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KDC)의 세목전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아울러 주요 분류표의 국제통상 분야의 발전과정을 국제통상학의 발전과 연계하여 최신판과 이전 판의 차이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앞으로의 국제통상분야 분류표의 전개에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 B. 연구 방법

주제로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정분류표에 기초한 분류기호를 알아서 서가로 직접 접근하는 방법과 특정주제명표목표에 의거하여 해당 주제명표

목을 찾아 주제명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명표목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 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 국제통상에 해당하는 "International Trade"란 주제명표목으로 이 주제에 해당하는 서양 자료를 서울대학교 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사회과학 도서관에서 찾아 서 둘 이상의 도서관에 소장된 59개 서양 자료의 서지 레코드를 뽑아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국제대학원이 있는 연세대학교의 도서관 목록을 검색하였고 동일한 자료에 주어진 다양한 분류기호를 서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제통상이란 주제 하에 각 분류표에서의 분산을 알아보았다. 분산이란 특정 주제의 문헌이 커지면, 갈수록 주제가 분산되고 그래서 자료를 알아내고 수집하고 조직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국제통상이란 주제에 관한 자료들을 다양한 분류표에 의해 분류기호를 줄 경우, 그 자료들이 얼마나 흩어지는지 알아보자 하였다. 분류의 목적이 동일 주제의 자료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제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들이 하나의 類나 綱, 또는 최소한 몇 개의 類나 綱에 분류되어야만 한다. 類나 綱의 수가 늘어날수록 주제는 점점 더 많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세 개의 다른 분류표에서 국제통상이란 주제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 類, 綱, 目, 細目的 차이를 알아보았다. 각 분류 체계 안에서 국제통상이란 주제의 자료가 갖는 분류기호는 달라도 동일한 자료가 다양한 분류 체계 안에서 분류될 때, 그 자료들이 항상 똑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곳으로 놓여져야 한다. 즉 한 항목이 세개의 분류표에 있을 때 각 분류 체계 안에서 유사한 類, 綱, 目, 細目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 의회도서관분류표(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이하 LCC) 안에서 국제경제학 아래에 분류된 것은 뉴이십진분류표(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DDC)나 KDC에서도 국제경제학에 일치되는 번호 아래에 분류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개의 분류표 중 DDC는 1876년에 초판이 나온 이래 1996년에 21판이 나왔고 LCC는 각 주제별로 나온 주제별 분류표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통상이 들어가 있는 사회과학 H 분류표가 1910년에 처음 나온 이래, 1920년, 1949년, 1967년, 1980-1981년, 1994년에 이어 1996년에 새로이 개정되었다. KDC는 DDC의 대안으로써 한국도서관협회에서 1964년에 초판이 나온 이래 1966년에 수정작업이 있었고 1980년에 3판, 1996년에 4판이 나온 비교적 역사가 짧은 한국 고유의 분류표이다. 이와 같이 분류표는 학문의 발전에 따른 계층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DDC는 135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분류표이고 LCC는 전문 도서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KDC는 한국 유일의 표준분류표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이러한 분류표의 사용은 이들 분류기호를 포함하는 서지 레코드의 폭넓은 유용성으로 인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의 범위는 국제통상 분야로 국한했으며 비교 분석에 사용한 분류표는 KDC, LCC, DDC의 3개 분류표로 최신판과 이전 판이다. 이들 주요 분류표의 해당 분야 변천을 살펴보고 실제로 동일한 서양 자료들의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59개 자료의 분류기호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C. 문헌 연구

국제통상의 분류 전개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는 국내외로 전혀 없었고 특수 주제의 전개 및 수정 방

안에 관한 연구들은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도서관 자체 내에서 기존 주요 분류표를 고쳐 쓰는 정도였다. 한국에서는 도서관 자체 내에서 기존 분류표를 자관의 필요에 따라 전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 외에도 특수 주제 분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분류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신학, 역사학, 경제학, 수학, 총류, 법학, 전자공학, 사회학, 심리학, 도서관학, 기술분야, 한국학, 음악, 철학, 교육학 등에서 이루어져 최근에 갑자기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로 아직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나 발전가능성과 전개필요성이 큰 분야는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 또한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DDC 하나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좀 더 다양한 분류 체계의 측면을 다루지 못한 점이 많았다. 게다가 용어의 개념이 시대의 변천을 반영하여 변화하였는지, 비논리적인 항목이나 항목간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주제 분산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로 박옥화(1997)는 KDC 철학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였으며 한국실정에 맞는 철학 분류 체계의 전개를 제시하였다. 강인석(1997)은 토목공학 분야의 분류 체계를 분석하였는데 문헌분류전문가가 아닌 주제분야 전문가로서 학술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토목공학분야의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국외에서는 다양한 분류 체계와 함께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Deffenbaugh(1975)는 유대교 자료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뉴욕에 있는 Union Theological Seminary 도서관의 분류표, LCC, Bliss의 분류표를 비교하였다. 이중 LCC는 신학도 서관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분류표로 상당히 융통성 있고 상세하고 이용하기 쉽고 우수한 색인과 기호, 개정 능력을 가진 분류표라고 하였다. Bury(1984)

는 NLMC(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lassification)와 Bliss의 H 분류표를 저자에 의한 12개의 이론적 영역, 이를 분류표로 분류된 자료들, 이를 분류표의 색인으로 비교하였다. 그는 NLMC 보다 Bliss가 더 논리적으로 배열되고 더욱 상세하며 융통성과 적용성이 뛰어나지만 NLMC의 배열이 사용하기에는 더 쉽다고 하였다. NLMC는 상호 참조나 동의어, 상술의 연결과 기호의 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liss의 분류표는 NLMC보다 더 많은 색인 용어를 포함하고 더욱 완전하고 상세한 주제 색인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kham(1990)은 해초에 관해 DDC와 LCC에서 이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관해 비교하였는데 그는 DDC가 LCC보다 우수하다고 하였다. LCC의 경우, 해초류의 알파벳 순 배열로 인해 동일하지 않은 주제의 집단화가 이루어졌던 반면 DDC는 해초 문헌을 위한 綱의 상하위 체계가 식물학의 분류와 일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Markham은 순수 과학에서 DDC가 LCC보다 우수하고 응용 과학에서는 LCC가 DDC보다 우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Boyce(1990)는 미 의회도서관 분류표와 정부간행물 분류표에 있어서 주제 분산을 비교하였다. Monthly Catalog of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cations에 수록된 4개의 부처에서 나온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각 부처에 따라 주제 분산의 정도가 각기 다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Connaway와 Sievert(1996)는 의료 보험 정보를 위한 분류 체계를 LCC, DDC, NLMC로 비교하였는데 모두 주제 분산이 있었으며 각각의 분류표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발전가능성과 전개필요성이 큰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항목들이면서 국제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분류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좀 더 다양한 분류표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국립진분류표가 시대의 변천과정, 학문의 발전 추세, 용어의 현대화, 포괄적이면서 상세하고 무한한 전개 가능성을 가진 분류표 설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II. 국제통상의 이론적 배경

### A. 개념

모든 국가는 자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후생이 증가되기를 기대하는데 이러한 각국들의 욕구는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과거처럼 일국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형태의 경제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국민경제의 경제효율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적극적인 대외거래에 참여하여 유리한 재화는 수출하고 불리한 재화는 수입하는 소위 국제분업을 행함으로써 자국의 수요·공급을 조정하게 된다. 이러한 분업활동은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하며 국가간의 상거래로서 성립된 이러한 활동을 무역이라 한다(원종근, 구종순, 박광서, 1994).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교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47년에 태동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에서는 전세계의 경제교류는 전적으로 재화의 국제간 흐름에 대해서만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국제무역이론이나 정책 그리고 실무로서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상품위주의 교역을 다루는 GATT 체제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자본거래나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을 다룰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교역의 전분야를 다루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가 1995년에 출범하게 됨으로써 세계교역은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어 과거의 국제무역이론이나 정책, 실무로서는 통상 문제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세계경제교류의 전 분야를 다루는 국제통상학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는 체계화된 국제통상론을 통하여 접근해야만 자국의 번영은 물론 전세계의 번영을 동시에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이 일국의 번영만을 위한다면, 일방적인 거래만을 생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당사국 공동의 번영, 나아가 전세계의 번영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쌍방적인 거래를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국제통상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바로 국제통상이며, 여기에 국제통상학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윤기관 외,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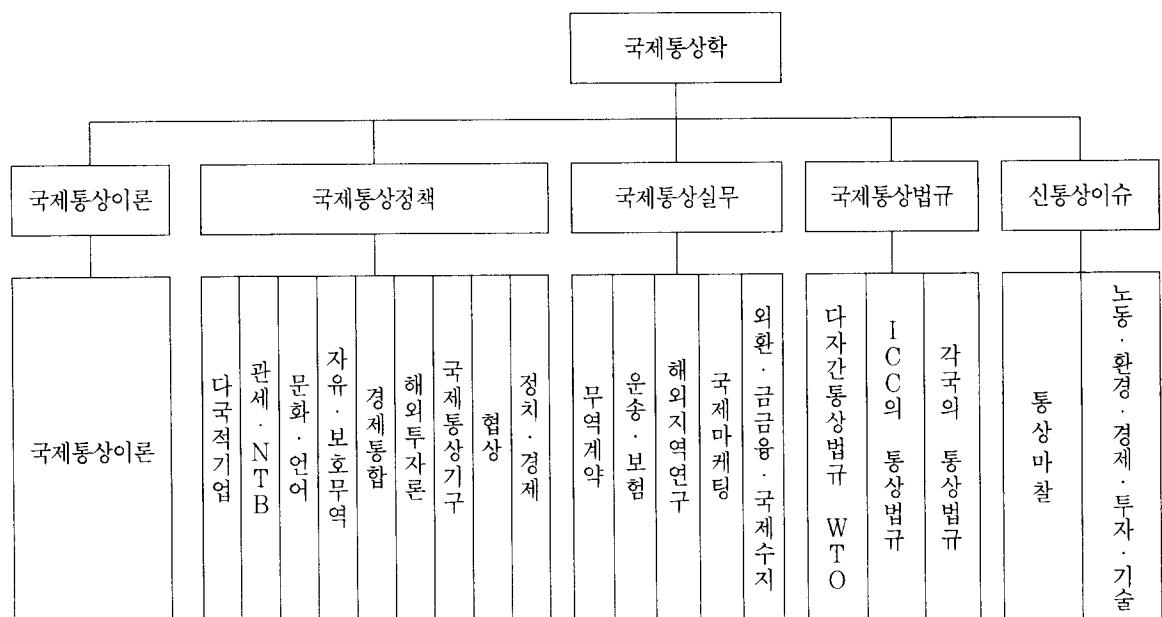
영어로 International Trade 또는 International Commerce라고 표기하는 국제통상은 국제무역과 실질적인 개념차이는 없다. 국제무역은 상품위주의 유형재화의 교역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국제통상은 자본,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무형재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에서도 국제통상이란 “특정 물품과 관련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국제무역과 관련된 서비스 및 해외투자로서 물품 또는 서비스 교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상의 개념은 상품의 수출입은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 자본, 노동 등 각종 유형재 및 무형재를 포함하는 국제간의 교역을 의미한다. 특히 WTO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국제통상은 국제무역에서 다루는 분야를 초월하는 국가간의 모든 경제교류와 협력의 전 부문을 포괄하는 광의의 무역과 동등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국제통상은 수출입을 지원하는 정부간의 대외교섭활동과 무역업계의 통상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 및 전략을

포함하는 제반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박종수, 1997). 따라서, 국제통상이란 일정한 지역 내의 서로 다른 국가간의 경제거래로서 물품의 매매를 비롯하여 운송, 보험, 통신, 금융분야 등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의 제공과 그 이용에 관한 용역거래 그리고 기타 자본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제통상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세계 국민의 복지향상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국제통상학을 통하여 이룩할 수가 있다. 더구나 WTO 시대에 국제통상학의 중요성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느냐 못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또한, 자국의 번영은 WTO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달려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학문적 의의가 높다.

### B. 韓文

국제통상학에서는 국제통상과 관련된 전 분야를 다룬다. 하지만, 국제통상학의 주된 연구범위는 국제통상이론, 국제통상정책, 국제통상실무, 국제통상법규, 신통상이슈라 할 수 있다. 국제통상이론에서는 국제무역이론과 국제금융이론이 연구대상이 된다. 국제무역이론에서는 상품위주의 국제무역이론을 연구하게 되고, 국제금융이론에서는 외환과 환율, 국제수지 등이 연구대상이 된다. 국제통상정책에서는 국제통상학에서 가장 연구범위가 방대한 연구분야로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정책, 관세와 비판세장벽이 그 주된 연구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책측면에서는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해야 하므로 문화와 언어, 상관습, 국제경제 및 경영, 정보 등 다각적인



(출처 : 설영기 국제통상학개론 1997.)

### 〈그림 1〉 국제통상학 연구법위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국제통상실무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정형무역가격조건,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등에 의하여 국제상품 위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는 무역계약, 운송 및 보험, 해외지역연구 등 국제통상의 실무상 발생하는 여러 절차들이 연구대상이 된다. 국제통상법규에서는 다자간 통상법규, 미국의 통상관련법, 반덤핑 관세법규, 상계관세법규, 세이프가드법규, 국제통상분쟁해결법규 등이 그 연구대상이 된다. 신통상 이슈에서는 통상마찰과 노동, 환경, 투자, 경쟁拉운드 등 현재 및 장래에 대두하게 되는 통상문제들이 그 연구대상이 된다. 이상의 국제통상학 연구범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설영기, 1997).

### III. 주요 분류표의 비교 분석

#### A. 국제통상 자료의 분류기호

##### 1. DDC

1876년에 처음 Dewey가 만든 분류표인 DDC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십진식의 체계로 전개한다. 즉 지식의 전체를 10개의 主類(main classes)로 구분한 다음 다시 主類의 각각을 10개의 總(divisions)으로 구분하여 100개의 구분을 만든다. 다시 이를 개개의 總을 10개씩의 目(sections)으로 나누면 1000개의 구분으로 나뉘어진다. 이를 目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점진적 전개가 가능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상의 細目(subsections)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십진식의 체계는 하나의 개념을 10개씩의 하위주제로 점진적으로 구분해 나가므로 이렇게 구분된 주제들 간에는 계층적 구조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표를 계층적 분류표(hierachical classification)라고 한다.

DDC는 1996년까지 20차례나 개정되어 온 명실공히 세계적인 십진분류표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국제적通用이 용이하고 助記性이 풍부하고 무한히 전개할 수 있으며 우수한 상관색인을 구비하였다는 장점에 있지만 미국 위주로 만들어져 주제에 따라 국제적인通用성에 장애가 되고 새로운 주제를 삽입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학문간의 구성상 불균형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어왔다. 그래서 DDC는 각 나라에서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전개표를 만들어 적용하거나 부적합한 것을 억지로 맞추어 사용해오고 있다.

“International Trade”라는 국제통상의 주제명표목을 갖는 59개의 서양 자료는 LCC를 사용하는 사회과학 도서관을 제외한 5개의 도서관에서 24개의 구분이 명확한 DDC 분류기호가 부여되었다. 각각 구분이 되는 분류기호, 해당 항목명과 자료의 수가 <표 1>에 나타나있다. 85개의 레코드(53.5%)가 “300 Social science” 類 아래 “380 Commerce, 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總 아래 目인 382 “International commerce(foreign trade)”에 분류되었다. 또한 382 아래 여러 細目까지 포함하면 119개의 분류기호가 여기에 해당되었고 이는 전체 분류기호의 75%를 차지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DDC에서 국제통상분야의 주제 분산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類 아래 總으로 “330 Economics” “340 Law” “360 Social problems and services: associations”에 주제가 약간 흩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학, 법학, 사회문제와 국제통상 분야가 관련됨을 알려준다. 목으로는 “382 International Commerce(foreign trade)” “338 Production” “337 International economics” “331 Labor economics” “330 Economics” “332 Financial economics” “341 International law” “343 Military, defense, public property, public

〈표 1〉 국제통상 자료의 분류기호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분류기호 (Class Number)	분류 항목명 (Heading)	수 (N=159)
382	International commerce (Foreign trade)	85
382.3	Commercial policy	10
337	International economics	8
338.9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8
382.091	International commerce of areas, regions, places in general	7
382.92	World Trade Organization(WTO)	5
331.12	Labor market	4
338.6048	Competition and restraint	4
330.9	Economic situation and conditions	3
332.042	International finance	3
337.3	Foreign economic policies and relations of specific jurisdictions and groups of jurisdictions	3
382.094	International commerce in specific continents, countries, localities	2
382.1	Generalities of international commerce	2
382.7	Tariff policy	2
382.71	Free trade	2
382.73	Protective and prohibitive tariff	2
341.75	International economic law	2
330	Economics	1
338.7	Business enterprises	1
338.91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growth	1
343.087	Foreign(International) trade	1
361.3	Social work	1
382.5	Import trade	1
382.9	Trade agreements	1

\* 59개의 자료 중 5개의 각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우, 각 DDC 분류기호를 따로 다름.

〈표 2〉 국제통상 자료의 분류기호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분류기호 (Class Number)	분류 항목명 (Heading)	수 (N=54)
HF 1379	Social Sciences.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ternational trade. General works.	19
HF 1411	Social Sciences.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Foreign commercial policy.	6
HF 1359	Social Sciences.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General works.	4
HF 1713	Social Sciences. Commerce. Tariff policy(Protection and free trade). General works.	4
HD 82	Social Sciences. Economic history and conditions. Production. Economic growth, development, planning. General works. English.	2
HF 1414	Social Sciences.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Competition.	2
HF 1418.5	Social Sciences.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2
HF 1721	Social Sciences. Commerce. Tariff policy(Protection and free trade). Tariff. Reciprocity, Favored nation clause, etc. General works.	2
HF 4050	Social Sciences. By region or country. Other regions or countries. Communist countries East-West trade.	2
HF 4055	Social Sciences. By region or country. Other regions or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2
HC 59	Social Sciences. Economic history and conditions. History. By period. Modern. 20th century. 1945-1990.	1
HC 79	Social Sciences. Economic history and conditions. Special topics.	1
HD 5852	Social Sciences. Economic history and conditions. Labor market. Labor. Developing countries.	1
HF 71	Social Sciences. Commerce. Ministries, Department of trade, bureaus of commerce, etc. General works.	1
HF 1008	Social Sciences. Commerce. General works. Treaties, and advanced textbooks. 1979-	1
HF 1373	Social Sciences.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ternational trade. Dictionaries.	1
K 10	Law(General).	1
KDZ 948.8	Law of the Americas, Latin America and the West Indies.	1

finance, tax, trade(commerce), industrial law” “361 Social problems and social welfare in general” 순으로 분산이 이루어져 관련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細目으로는 “382.3 Commercial Policy”로 분류한 것이 가장 많아서 이는 국제통상정책이 국제통상분야에서 가장 방대한 연구분야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 2. LCC

LCC는 각 類의 전개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 주제별로 분류표를 완성하여 분책으로 출판되고 있다. 비십진식 분류법이어서 구분력이 우수하고 새로운 주제의 삽입이 가능하여 포용력이 있으며 주제의 전개가 어느 분류표보다 상세하다. 그러나 분류규정이 없어 분류작업 중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LCC를 사용하는 사회과학 도서관에서 59개 자료를 찾아본 결과, 54개 자료가 있었다. 類인 H와 K가 綱인 HF, HD, HC, KDZ로 분류되었다. <표 2>는 특수한 綱에 주어진 분류기호와 항목명과 자료의 수를 보여준다. 19개(35.2%)의 자료가 HF 1379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ternational trade, General works에 속해 있고 그 다음으로 6개(11.1%)의 자료가 HF 1411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Foreign commercial policy에 속해 있었다. “International trade”的 분류기호인 HF 1371-HF 1379에 해당하는 자료의 수는 24개(44.5%)로 DDC에 비해 주제의 분산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類는 법학인 K에 분류된 자료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과학인 H로 분류되었다. 하위 분류에서는 HF Commerce에 47개(87%)의 자료가 분류되었고 HD Economic History and Conditions에 3개,

HC Economic History and Conditions에 2개가 분류되었다. 그리고 KDZ Law of the Americas, Latin Americans and the West Indies에 1개가 분류되었다. 이로써 국제통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자료가 상업이란 커다란 주제 아래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3. KDC

KDC는 DDC가 너무 구미 위주로 작성된 분류표 이기에 한국의 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분류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만든 것이다. KDC는 DDC와의 전개 방식이 같으나 큰 차이는 DDC에서 400대와 800대로 나뉘어져 있는 어학과 문학을 KDC에서는 700대와 800대로 가깝게 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통상분야가 속한 사회과학 분야는 300대로 DDC의 主類와 같다.

그러나 6개의 도서관 모두가 양서를 분류하는데 KDC를 사용하지 않아 59개 자료의 KDC 분류기호를 바탕으로한 주제 분산은 다루지 못했다. 규모가 크고 우수한 도서관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차 동시에 분류는 KDC를 사용하면서 양서 분류는 DDC를 사용해서 KDC가 양서 분류시 해당하는 용어를 상관색인에서 찾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과 각 자료의 DDC나 LCC 분류기호를 서지레코드에서 대부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4. 동일 자료의 분류기호 비교

59개 자료의 6개 도서관에서 부여한 분류기호를 DDC와 LCC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 類에 주어진 명칭은 같지만 綱부터는 달라지고 있다. LCC의 HF1379는 “Social Sciences.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ternational trade, General works”이고 DDC의 382는 “Social Sciences. Commerce, 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International Commerce (Foreign trade)"로 동일한 자료의 분류기호가 주어졌는데 이러한 항목의 명칭은 유사하지만 어느 항목의 아래에 놓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즉 LCC에서는 국제통상을 국제경제관계의 아래에 놓고 있는 반면에 DDC는 상업, 커뮤니케이션, 교통 아래에 두고 있다.

DDC 분류기호 382 International Commerce (foreign trade)에 부여된 자료가 LCC의 경우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ternational Trade, General works",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Foreign commercial policy," "Commerce, Tariff policy(Protection and free trade), General works,"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General works," "Commerce, By region or country,"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Commerce, Trade ministrie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s of trade, General works,"와 "Commerce, Commercial education, By region or country"로 매우 상세하게 주제를 나타내는 분류기호로 나뉘어지고 있다. 분류기호의 불일치가 많이 이루어진 자료는 18개 (28.8%)였으며 이중 한 예를 들면, East-West economic relations in the 1990s라는 자료의 경우,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도 382 International Commerce(Foreign trade)와 337 International economics로 다르게 분류되었으며 LCC는 HF 4050 Commerce, By region or country, Communist countries 아래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류기호를 보면 동일한 자료가 주제의 어떠한 측면을 중요하게 보는가와 그 분류 체계가 얼마나 상세하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른 綱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라는 자료도 DDC는 382로 통일되었지만 LCC는 HF 1411 Commerc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Foreign commercial policy로 분류되어 DDC에 382.3 Commercial policy라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분류기호인 382 International Commerce(Foreign trade)로 분류하여 대략 분류를 하는 경우, 유사한 자료가 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B. 주요 분류표에서 국제통상 분야의 변천

분류표의 개정형태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항목의 삽입으로 이는 이전 판에 없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항목의 삭제로 이는 이전 판에 있던 항목을 없애는 것이다. 셋째는 항목의 移置로 이는 이전 판에 있던 항목을 다른 분류기호로 옮기는 것이다. 넷째는 항목명의 변경으로 이는 이전 판에 있던 항목명의 의미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기사항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새롭게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고 예제를 두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분류표에서의 개정형태를 각 분류표로 다루면 다음과 같다.

### 1. DDC

DDC에서 국제통상 분야에 해당하는 분류 체계를 21판인 최신판과 이전 판인 20판을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각 항목 명칭에 대해서는 원의미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분류표에 나온 그대로 기재하였다. 국제통상에서는 국내 무역과 외국 무역으로 구분해 주었고 우편, 통신, 교통과 같이 무역과 서로 연관성이 깊은 부분을 380 Commerce, Communications, Transportation으로 다 모아주

〈표 3〉 DDC의 국제통상 분야 판별 비교

DDC 20판 (1989)		DDC 21판 (1996)	
382 International Commerce (Foreign trade)		382 International Commerce (Foreign trade)	
.01 Philosophy and theory		.01 Philosophy and theory	
.09 Historical and geographical, persons treatment		.09 Historical and geographical, persons treatment	
		.091 International commerce of areas, regions, places in general***	
		.093-099 International commerce in specific continents, countries, localities***	
382.1 Generalities of international commerce		382.1 Generalities of international commerce	
.104 Theories		.104 Theories	
.1042 Specialization and comparative advantage		.1042 Specialization and comparative advantage	
.1044 Price determination in international markets*			
.17 Balance of payments		.17 Balance of payments	
.173 Capital transactions*			
.174 Currency movements*			
382.3 Commercial policy		382.3 Commercial policy	
382.4 Specific commodities and services and specific groups of commodities and services		382.4 International commerce by products and services**	
382.5 Import trade		382.5 Import trade	
.52 Import quotas		.52 Import quotas	
.53 Embargoes on imports		.53 Embargoes on imports	
.54 Licensing of imports		.54 Licensing of imports	
382.6 Export trade		382.6 Export trade	
.61 Nature and utilization of specific export market areas		.61 Export trade by export market areas**	
.6109 Historical and geographical, persons treatment		.6109 Historical and geographical, persons treatment	
.63 Export policy		.63 Export policy	
.64 Export controls and restrictions		.64 Export controls and restrictions	
382.7 Tariff policy		382.7 Tariff policy	
.71 Free trade (No tariff)		.71 Free trade**	
.72 Tariff for revenue (Fiscal tariff)		.72 Tariff for revenue**	
.73 Protective and prohibitive tariff		.73 Protective and prohibitive tariff	
.75 Single and multiple column tariffs		.75 Single and multiple column tariffs	
.752 Single column tariffs		.752 Single column tariffs	
.753 Multiple column tariffs		.753 Multiple column tariffs	
.78 Exemptions		.78 Exemptions	
.782 Personal and institutional		.782 Personal and institutional exemptions**	
.788 On relief supplies		.788 Relief supply exemptions**	

〈표 3〉 DDC의 국제통상 분야 판별 비교(계속)

DDC 20판 (1989)	DDC 21판 (1996)
382.9 Trade agreements and their implementation	382.9 Trade agreements**
.909 Historical and geographical, persons treatment	.909 Historical and geographical, persons treatment
.91 Multilateral agreements and customs unions	.91 Multilateral agreements**
.911 In areas, regions, places in general	.911 Multilateral agreements in areas, regions, places in general**
.913 In ancient world	.913 Multilateral agreements in ancient world**
.914 In Europe	.914 Multilateral agreements in Europe**
.9142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uropean Common Market, EEC)	.9142 European Union**
.9143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9143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
.9147 Council for Mutual Economic Organization (COMECON)	.9147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
.915-.919 In other continents and regions	.915-.919 Multilateral agreements in other continents and regions**
.92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92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93-.99 By specific countries	.93-.99 Trade agreements by specific countries**

\* 항목이 없어지고 다른 분류기호로 移置됨

\*\* 분류항목명이 변경됨

\*\*\* 분류항목이 세분되어 추가됨

었다.

20판과 21판은 거의 개정이 되지 않은 편으로 변경된 내용은 보조표 이용에 대한 설명주거나 예시주를 추가 또는 삭제한 경우가 많았으며, 항목 명칭의 경우 부가 설명적 어구를 첨가하거나 불필요한 단어를 생략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細目으로 382. 2와 382. 8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번호로 앞으로 새로운 분야를 위해 남겨두었다. 21판에서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항목명을 변경한 것으로 382.9142 European Union과 382.92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의미 있게 개정되었다. 추가된 항목은 지역과 인물을 위해 조기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목과 주기사항을 명시한 382.091과 382.093-.099의 2개 항목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

나 국제 재정에 관한 학제적 자료는 332.042 International finance에 분류하고 국제 경제에 관한 학제적 자료는 337 International economics에 분류하라는 주기가 382 아래 주기로 추가되었다. 382.1044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은 338.52 Price Determination으로, 382.173 국제자본거래와 382.174 국제통화유통은 332.042 International finance로 移置하여 분류하라고 지시되었다. 또한 382.911091과 382.91093-.91099는 사용하지 말고 382.911과 382.913-.919로 분류하라고 바뀌었다. 그러나 새로운 항목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 국제통상분야에 하나의 항목으로 추가할 만큼 중요한 분야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LCC (1996년도 판) 국제통상 분야

H	Social Sciences
HF	Commerce
HF55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Proposed)
HF71-	Trade ministrie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s of trade
HF73.A-Z	General works By region or country, A-Z
HF1351-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HF1359	Periodicals. Societies. Congresses
HF1371-	General works International trade
HF1379	Periodicals. Societies. Serials Congresses Dictionaries General works
HF1410-	Foreign commercial policy
HF1411	Periodicals. Societies. Serials Congresses General works
HF1412	General special
HF1413	Developing countries
HF1413.5	Economic sanctions. Boycotts
HF1414	Competition
HF1414.3	Countertrade
HF1414.4-	Export
HF1417	
HF1417.5	Foreign trade promotion
HF1418	Free ports
HF1418.5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HF1419-	Imports
HF1420	
HF1421	Trade adjustment assistance
HF1425	Dumping
HF1428	International commodity control
HF1429	Foreign licensing agreements
HF1430	Nontariff trade barriers
HF1430.5	Subsidies
HF1451-	By region or country
HF1647	

〈표 4〉 LCC (1996년도 판) 국제통상 분야 (계속)

	Tariff policy (Protection and free trade)
HF1701	Periodicals. Societies. Serials
HF1703	Congresses
HF1704	Collected works (Nonserial)
HF1705	Dictionaries
HF1711	History
HF1713	General works
HF1715-	
HF1718.A-Z	Drawbacks
HF1721-	
HF1723	Tariff. Reciprocity. Favored nation clause, etc.
HF1745-	
HF2580.9	By region or country
HF2581-	Tariff and other interests
HF2619	
HF2651.A-Z	Tariffs on commodities. By commodity, A-Z
HF2661-	Export duties
HF2671.A-Z	
HF2701	Export premiums. Export subsidies
HF3000-	By regions or country
HF4055	

## 2. LCC

LCC에서 국제통상 분야에 해당하는 분류 체계를 HF를 중심으로 최신판인 1996년도 판과 이전 판인 1994년도 판을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것이 없고 HF 2999-4055 Commerce, By region or country가 HF3000-4055로 옮바르게 수정된 것 외에는 없다. 이는 1994년에 분류표가 나온 지 2년만에 또다시 사회과학 분야 H 분류표가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1996년도 HF 분류표에서 국제통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DDC와는 달리 상업 아래 국제경제관계를 두고 그 아래에 국제통상분야, 외국무역정책, 수출, 수입, 덤핑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DDC에서 국제통상분야 아래로 속했던 분야들이 국제통상분야와 동등한 위치에서 국제경제관계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업 아래에서 국제경제관계와 동등한 위치로 관세 정책을 놓아 이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

〈표 5〉 KDC의 국제통상 분야 판별 비교

KDC 3판 (1980)		KDC 4판 (1996)
326.2 무역	상업일반→326.1 : 국제경제→322.8	326.2 무역
.201 무역이론	무역사상, 국제무역균형론 등을 포함 한다.	.201 무역이론
.209 무역사		209 무역사
.21 무역정책		.21 무역정책
.211 자유무역		.211 자유무역
.212 보호무역	무역진흥책, 관세보호, 무역장려금,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212 보호무역
.213 무역통제, 통제무역	수출입할당제를 포함한다.	.213 무역통제, 통제무역
.215 덤핑	보이코트를 포함한다	.215 덤핑
.216 수출입금지	밀수방지책을 포함한다	.216 수출입금지
.22 무역품 (국제상품)	품질검사, 원산지증명 등을 포함 한다. 상품일반→326.12	.22 무역품 (국제상품)
.227 밀수품, 특정외래품문제		.227 밀수품, 특정외래품문제
.23 무역실무	통관수속, 무역기록, 무역회계 등을 포함한다.	.23 무역실무
.26 수출		통관수속, 무역기록, 무역회계, 무역신용장 등을 포함한다.***
.27 수입	국제상업→326.1	.25 무역회사*
.28 관세제도	세관을 포함한다.	.26 수출
.29 통상규약	규약론→361.3	.27 수입
		국제상업→326.1
		.28 관세제도, 정책**
		관세, 세관 등을 포함한다.***
		.29 통상규약 및 기구**
		GATT(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EFTA(Europe Free Trade Association),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등 국가간의 무역에 관한 규약 및 기구를 포함한다.***
		국제규약→361.3

\* 새로이 추가된 항목임

\*\* 항목명이 추가되어 변경됨

\*\*\* 새로운 주기사항이 추가되거나 주기의 내용이 추가됨

\*\*\*\* 외래어 표기가 달라짐

〈표 6〉 KDC의 국제통상 관련 분야 판별 비교

KDC 3판 (1980)	KDC 4판 (1996)
322.8 국제경제 .81 국제경제관계	322.8 국제경제 .81 국제경제관계 정책, 회의, 기구(EC, COMECON) 등을 포함한다.***
.82 경제통합 경제블럭을 포함한다.	.82 경제통합 경제블럭, 지역경제협력 등을 포함한다.***
.83 경제협력, 경제원조 대외경제정책, 후진국개발, 배상문제 등을 포함한다. 경제협력체제 및 기구를 포함한다. 국제법상의 배상문제->361.654	.83 경제협력, 경제원조 대외경제정책, 후진국개발, 배상문제, 국가간 경제협력 자원의 기술이전, 경제협력체제 및 기구 등을 포함한다.*** 국제법상의 배상문제->361.654
.88 수혜국 및 피원조국 경제사정 여기에는 수개국으로부터의 일지역 또는 일국가에 대한 경제원조 등을 포함한다.	.88 수혜국 및 피원조국 경제사정 여기에는 수개국으로부터의 일지역 또는 일국가에 대한 경제원조 등을 포함한다.

\*\*\* 주기사항이 생겼거나 주기의 내용이 추가됨

했고 상업이란 주제 아래서 바로 지역과 국가별로 분류할 수 있게 하였다.

### 3. KDC

KDC 4판을 3판과 비교해 보면 거의 변화가 없었고 1개의 항목만이 추가되고 몇몇 주기사항에 설명이 추가되었다. 이는 1996년 4판의 개정방침이 이전 판에서 사용하던 類, 綱, 目의 변경은 가능한 한 피하고 그 안에서 細目 부분을 개정 전개하고 새로운 학문 발전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항목을 배정하며 부적절한 항목은 새로운 항목으로 대치하고 급변하는 주제는 필요한 세목을 과감히 전개, 세분한 결과로 이러한 개정 방침은 실제로 1980년 KDC 3판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개정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국제통상에 해당하는 무역이 들어있는 類는 300 사회과학이다. 그러나 KDC의 사회과학의 綱 배열은 DDC보다는 LCC의 배열을 따르고 있다. DDC

의 320 경제학, 650 경영학, 380 상업을 KDC에서는 320 경제학 아래 325 경영학과 326.1 상업에 배정하여 이용이 편리하게 물어주었다. 그러나 DDC에서 目 수준에 있던 국제통상을 KDC에서는 細目으로 작게 배정하는 문제를 가져왔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커질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이는 결국 분류기호의 길이가 길어져 기억과 식별의 불편을 가져오고 학문의 구분 방법이 불균등하고 주제의 전개가 비논리적으로 되게 하였다. 즉 동위 관계, 상하 관계가 뚜렷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상관색인이 DDC보다 정교하지 못해 양서의 경우, 분류표 이용시 어려움이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

〈표 5〉와 〈표 6〉은 국제통상에 해당하는 326.2 무역과 관계가 깊은 322.8 국제경제의 분류 체계의 細目 이하를 비교한 것이다. KDC에서 326.2 무역은 326 공익사업, 320 경제학에 속한 紹目이다. 326.2 무역 아래 326.25 무역회사가 새로이 추가된

항목이며 종합무역상사 등을 포함한다는 주기가 생겼다. 326.28 관세제도에 정책이 추가되었고 주기에 관세를 포함한다는 주기를 넣었다. 326.29 통상규약에 기구를 추가하여 GATT, EFTA(Europe Free Trade Association),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WTO 등을 분류하라는 포함 주를 주어서 분류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렇게 2개의 항목명이 바뀌었는데 기존의 항목명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었고 3개의 포함주가 이전판에 비해 상세하게 보완되었다.

국제통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322.8 국제 경제는 세목 전개나 항목명의 차이는 없었으며 KDC 4판의 주기가 3판보다 더 충실해졌다는 것 외에는 주목할만한 틀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332.81 국제경제와 관련된 기구의 예로 European Union(EU)을 EC라는 이전의 표기를 사용하고 있어 분류표의 최신성이 떨어지게 하였다. 또한 DDC에서는 382.9 통상협약 아래 EU와 COMECON을 EFTA, WTO의 근처로 다 모아주고 국제경제 아래 337.142로 European Union이란 항목을 따로 만들어 주고 있으나 KDC는 322.81 국제경제관계 아래로만 EU와 COMECON을 관련 기구로 따로 놓아 통상협약과 완전히 분리되게 하였다. 결국 DDC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의 분류 체계를 세우려 한 것은 좋았으나 차라리 DDC를 그대로 수용한 것 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온 부분이 있다.

#### IV. 국제통상 분야 분류표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A. 문제점

〈표7〉은 KDC를 중심으로 해당 항목을 DDC와

LCC의 각 분류기호로 작성해 본 것이다. 전체 항목 구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DDC와 LCC가 KDC에 비해서 항목설정이 세분화되어 있었다. KDC는 우선 설정된 항목수가 적고, 설정된 항목조차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료가 분산될 가능성이 커다. KDC에서 무역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DDC와 LCC에서는 경제학이나 재정학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몇몇 있었다. KDC 326.201 무역이론의 경우, 무역사상과 국제무역균형론을 분류하도록 포함주로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 항목은 LCC에서 HG 3882에 해당하고 HG는 Finance(재정학)에 해당하는 것이다. 덤펑과 보이콧의 경우, DDC는 덤펑을 무역법상의 문제라는 입장으로 간주해 300 Social Sciences 아래 340 Law 아래 343 Military, tax, trade, industrial law 아래 343.08 Regulation of trade (Commerce) 아래의 343.087 Foreign (International) trade에 분류하도록 항목을 설정하였고 LCC는 덤펑을 HF 1425로 상업 아래의 국제 경제 아래의 항목으로 두고 보이콧을 HF 1413.5로 따로 분리하여 놓았다. 반면, KDC는 이 두 가지를 326.2 무역 아래 326.21 무역정책 아래 326.215에 두고 있다. KDC 326.22 무역품의 경우, 품질검사와 원산지증명을 분류하도록 포함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항목은 LCC의 HJ 6617에 해당하고 HJ는 Public Finance(공공재정학)에 해당한다. KDC 326.227 밀수품의 경우, DDC에서는 밀수품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학의 細目으로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LCC에서는 공공재정학인 HJ 6619에 항목을 설정하였다. KDC 326.23 무역실무의 경우, 무역회계, 무역신용장 등을 분류하도록 명시한 이 항목은 DDC와 LCC 모두에서 통상부분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항목을 설정하였다. DDC에서는 무역회계를 회계학의 細目으로 두었으며, 신용장은 재정학의 細目

〈표 7〉 국제통상분야 KDC, DDC, LCC 비교

KDC 4판 (1996)	DDC 21판 (1996)	LCC (1996)
326.2 무역	382 International Commerce (Foreign trade)	HF 1371-HF1379.2 International Trade
326.201 무역이론 〈주〉 무역사상, 국제무역균형론	382.104 Theories 382.17 Balance of payments 〈주〉 Balance of trade	HF 1003-HF 1008 General works, treatises, and advanced textbooks. HF 1014 Balance of trade HG 3882 Balance of payments
326.209 무역사	382.09 Historical and geographical, persons treatment	HF 351-HF499 By period HF 3000-HF 4055 By region or country
326.21 무역정책	382.3 Commercial policy	HF 1410-HF1411.2 Foreign commercial policy
326.211 자유무역	382.71 Free trade	HF 1701-HF 2701 Tariff policy (Protection and free trade)
326.212 보호무역 〈주〉 무역진흥책, 관세보호, 무역장려금, 보조금	382.73 Protective and prohibitive tariff	HF 1701-HF 2701 Tariff policy (Protection and free trade) HF 1417.5 Foreign trade promotion HF 1421 Trade adjustment assistance
326.213 무역통제, 통제무역 〈주〉 수출입 할당제, 수출입허가제	382.52 Import quotas 382.54 Licensing of imports 382.64 Export controls and restrictions	HF 1414.5 Export controls HF 1428 International commodity control HF 1429 Foreign licensing agreements HF 1701-HF 2701 Import licensing

〈주〉는 주기사항을 뜻함

〈표 7〉 국제통상분야 KDC, DDC, LCC 비교(계속)

KDC 4판 (1996)	DDC 21판 (1996)	LCC (1996)
326.215 덤핑 〈주〉 보이콧	343.087 Foreign (international) trade	HF 1425-HF1426 Dumping HF 1413.5 Economic sanctions. Boycotts.
326.216 수출입금지 〈주〉 밀수방지책	382.53 Embargoes on imports	
326.22 무역품 (국제상품) 〈주〉 품질검사, 원산지증명	382.4 International commerce by products and services	HJ 6617 Certification of origin
326.227 밀수품, 특정외래품문제	364.133 Offenses against revenue 〈주〉 bootlegging, counterfeiting, illicit distilling, smuggling, tax evasion	HG 335-HG 341 Counterfeiting HJ 2348.5-HJ 2348.7 Tax evasion HJ 6619 Smuggling
326.23 무역실무 〈주〉 통관수속, 무역실무, 무역회계, 무역신용장	657.839 Wholesale and retail trade 332.77 Letters of credit	HF 5419-HF 5422 Wholesale trade HF 5428-HF 5429.6 Retail trade HG 3745 Letters of credit
326.25 무역회사 〈주〉 종합무역상사		
326.26 수출	382.6 Export trade 382.61 Export trade by export market areas 382.63 Export policy 〈주〉 subsidies	HF 1414.4-1417.2 Exports HF 2701 Export premiums. HF 1416 Export and international marketing HF 1430.5 Subsidies HF 2661-HF 2671 Export duties HF 1417 Export processing zones
326.27 수입	382.5 Import trade 〈주〉 nontariff barriers to trade	HF 1419-HF 1420.2 Imports HF 1420 Import substitution HF 1430 Nontariff trade barriers

〈표 7〉 국제통상분야 KDC, DDC, LCC 비교(계속)

KDC 4판 (1996)	DDC 21판 (1996)	LCC (1996)
326.28 관세제도, 정책 〈주〉 관세, 세관	382.7 Tariff policy 〈주〉 drawback 382.72 Tariff for revenue 382.75 Single and multiple column tariff 382.78 Exemptions 382.782 Personal and institutional exemptions 382.788 Relief supply exemptions	HF 1701-HF2701 Tariff policy HF 1715 Drawbacks HF 1718 Tariff. Reciprocity. Favored nation clause. HF 2651 .A-Z Tariffs on commodities by commodity, A-Z HF 1713 Tariff policy HF 1723 Colonial tariffs HJ 2336-HJ2337 Exemptions
326.29 통상규약 및 기구 〈주〉 GATT, EFTA, NAFTA, WTO, 국가간의 무역에 관한 조약 및 기구	382.9 Trade agreements 382.909 Historical and geographical persons treatment 382.91 Multilateral agreements 382.911 Multilateral agreements in areas, regions, places in general 382.913 Multilateral agreements in ancient world 382.914 Multilateral agreements in Europe 382.9142 European Union 382.9143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382.915-.919 Multilateral agreements in other continents and regions 382.92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382.93-.99 Trade agreements by specific countries 337.142 European Union 337.143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HF 55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HF 55.5 Organization for trade cooperation

〈주〉는 주기사항을 뜻함

으로 두었다. LCC에서도 신용장을 재정학 쪽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KDC 326.29 통상규약 및 기구의 경우, GATT, EFTA, NAFTA, WTO 등 통상규약 및 기구에 대한 내용을 분류하도록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DDC에서는 이런 기구들을 통상의 입장과 국제경제협력의 입장으로 그 관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통상의 입장일 경우는 382.9에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국제경제협력의 입장일 경우는 337.14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사용하는 분류표에 따라 동일한 자료가 상당히 다른 위치에 놓이도록 이루어져 있었고 이는 특정 자료의 분류기호로 서가에 접근하여 관련 자료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B. 개선 방안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서 KDC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표안에서 纲 단위의 요약표와 目 단위의 요약표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분류 체계를 파악하고 동격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어 분류시 도움이 된다. 국제통상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가 어떠한 위치에 놓이는지를 쉽게 파악하게 해 줄 것이다.

둘째, 보다 많은 주기가 분류 항목마다 추가되어야 하고 각 주제의 다양한 측면에 해당하는 분류기호로 바르게 인도해 주는 다양한 형태의 주기가 필요하다. 분류 표목을 설명해 주는 정의주, 표목 아래 그 범주를 열거해 주는 범위주, 표목의 주제를 일일이 열거해 주는 예시주, 표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시해 주고 종속적인 주제를 나열하는 포함주, 어떤 항목에 분류하라고 알려주는 지시주, 이전에 어떤 표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전 표목주, 유사한 이름을 알려주는 별명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알려주는 일반명주, 변경 후의 사항을 알려주는 개정주, 미사용주, 재배치주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만 한다.

셋째, 분류 항목명이 같더라도 다른 纲 아래 분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일한 항목을 다른 纲이나 目 아래도 만들어 주어 주제에 적합한 분류기호를 갖고 관련 자료가 검색될 수 있게 해 주어야만 한다. 예를 들자면 EU의 경우, KDC 322.81 국제경제관계에 있는 EC를 EU로 옮바르게 수정해 주고 326.29 통상규약 아래 EU와 COMECON을 포함주의 예로도 넣어주어야 한다. 넷째, KDC에서 326.2 무역이란 細目으로 놓여진 것을 최소한 目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320대 纲 아래 비어있는 目이 없으므로 이것은 적합한 곳으로 移置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326 공익사업 (Public Utilities)은 공익사업의 정의주 없이 특수주제의 공익사업은 그 주제 하에 분류한다는 애매모호한 주기만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326 아래 326.1 상학, 상업, 326.2 무역, 326.3 교통, 326.4 통신, 체신, 326.7 방송이 細目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오히려 目의 명칭을 326 무역(통상), 교통, 방송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DDC의 경우도 Public Utilities는 각 주제별로 細目에 위치하고 있고 目으로 다룰 만한 주제는 못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纲이나 目으로 배정되어야 할 것은 적절한 위치로 바뀌어져야만 한다.

다섯째, 덤펑이나 보이콧도 분쟁시 법적인 문제를 가져오므로 361 국제법 아래 361.7 국제협력 아래 361.754 무역과 상업에 이와 관련된 자료의 항목이나 주기를 넣어주는게 바람직하다. 여섯째, 326.216 수출입금지에 밀수방지책을 포함시키고 326.227 밀수품이란 또 다른 항목을 주었는데 이는 함께 모으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일곱째, 수출입할당제나 수출입허가제, 수출입금지가 326.213, 326.216으로 분산되어있는데 이는 오히려 326.26 수출과 326.27 수입이란 항목 아래의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관련 주제를 손쉽게 한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326.26 수출, 326.27 수입, 326.28 관세제도, 정책, 326.29 통상규약 및 기구는 세부 항목으로 더 나누어주어서 구분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출 아래 수출정책이나 수입 아래 비관세장벽 그리고 관세제도, 정책 아래 수입관세 등으로 구분해 주고, 통상규약 및 기구에서도 지리적으로 각 기구별로 자료를 분류해서 모아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상관색인이 많이 보강되어야 한다. 다양한 용어를 상관색인에 명시하여 본표로의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통상 분야의 분류 상세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전문적인 세부 분야의 도서를 검색하는데 용이하게 해야만 한다. LCC가 타분류 체계에 비하여 월등히 풍부한 분류항을 보유하고 있고 DDC는 훌륭한 상관색인을 갖고 있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DDC와 LCC 분류표에서 국제통상 주제의 분산은 있었고 그 분산의 정도가 DDC보다 LCC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LCC는 가장 상세한 주제 분류표로 분산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해당하는 분류 기호를 바탕으로 자료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세 개의 분류표 안에서 국제통상이란 주제분야에 해당하는 類의 명칭은 거의 겹쳤으나 緝부터는 달랐다. 즉 하나의 분류표에서 緝을 안다는 것이 다른 분류표에서 유사한 緝으로 이끌어주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다양한 분류표를 동일한 자료에 적용해서 類에서의 일관성은 찾을 수 있지만 그 아래의 緝이나 目, 細目에서까지 일관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분류표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 국제통상정보에 관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단 하나의 분류기호를 알고 서가를 훑어보면서 자료에 접근하고자 할 때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DDC, LCC, KDC를 비교한 결과, KDC의 경우,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분류 주기의 활용과 분류 항목의 세분화, 분류 항목 계층의 논리성, 상관색인어의 추가가 개선할 부분으로 지적되었고 이는 DDC와 LCC, 그 외의 분류표를 참고하면서 한국에 적합하게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문분야의 전 영역이 고루 類, 緝, 目, 細目으로 격에 맞게 배치되고 그 순서가 유기적,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분류표가 개발될 때까지 분류표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며 관련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한 분류표의 끊임없는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 참 고 문 헌

김성곤. 1994. DDC의 기독교 문헌분류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남태우. 1991. "DDC의 어문학구분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21 : 1-60.

- 박옥화. 1992. “우리나라에 있어서 철학류의 분류문제.” *도서관* 47(5) : 3-22.
- \_\_\_\_\_. 1994. 철학류의 새로운 분류전개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박정추. 1986. Dewey 십진분류법에 있어서 수학분야의 분류전개 변천고. 서울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종수. 1997. 국제통상원론. 서울 : 박영사.
- 배영활. 1994. “DDC 20판 부가표의 발전과정과 유형 분석.” *국회도서관보* 235 : 14-26.
- \_\_\_\_\_. 1987. “분류표의 수학분야 비교 분석 : DDC의 피닉스표와 KDC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194 : 5-22.
- 설영기. 1997. 국제통상학개론. 서울 : 법경사.
- 윤기관. 1996. 국제통상론. 서울 : 법문사.
- 원종근, 구종순, 박광서. 1994. 무역개론. 서울 : 박영사.
- 이강만. 1986. DDC 전자공학분야의 분류전개변천고. 서울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창수. 1992. 역사 및 지리류에 대한 조합식분류표의 전개.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_\_\_\_\_. 1991. “DDC 지역구분표의 변천과정.” *도서관* 논집 18 : 193-216.
- \_\_\_\_\_. 1983. 뉴이십진분류법 도서관학 분야의 발전 과정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정애자. 1986. 뉴이십진분류표의 사회학 분야의 변천 과정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정옥경. 1981. DDC의 기술과학분야(600)에 대한 분류 전개 변천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정희정. 1987. DDC 법학 부문의 한국도서관에서의 적용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조원용. 1986. DDC 심리학 분야 전개변천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최정태, 양재한, 도태현. 1998. 문헌분류의 이론과 실제. 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 최희곤. 1991. DDC의 종류전개상의 제문제. 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한경신. 1994. “DDC에 있어서의 음악분야 분류상의 제문제.” *도서관* 26 : 75-112.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분과위원회. 1980. *한국십진분류법* [제3판] 서울 : 동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분류분과위원회. 1996.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서울 : 동협회.
- 현영아. 1994. “뉴이십진분류법 20판의 한국학 관계 항목 전개에 대한 연구.” 명지대 인문과학 연구논총 12 : 195-214.
- Boyce, Bert R. & et al. 1990. “Measurement of Subject Scatter in the Superintendent of Documents Classification,” *Government Publication Review*, 17 : 333-339.
- Bury, Susan. 1984.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lassification Compared with Bliss Class H.” *Health Libraries Review* 1(4) : 179-190.
- Connaway, Lynn Silipigni. & Sievert MaryEllen C. 1996. “Comparison of Three Classification Systems for Information on Health Insuranc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23(2) : 89-104.
- Deffenbaugh, James T. 1975. “Three Classification Schemes for Use in a Judaeo-Christian Theological Library : A

- Comparative Study," ED157 524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Policy and  
Support Office. 1996.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H. Social Sciences.  
Washington, D. C. : Library of Congress.
- Markham, James W. 1990. "LCC, DDC, and  
Algae,"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34(1) : 54-61.
- Mitchell, Joan S. & et al. ed. 1996.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New York : Forest Press.
- Polan, Ruth. 1975. "A Dewey-Eyed Look at  
Children's Book Classification : A  
Comparison of Four Classification  
Schemes Used in Children's Literature,"  
ED 122 782